

날짜: 5786년, 10월 17일 (2026년 1월 6일)

토라 롬: Shemot (이름들)

주제: 번창하는 축복이 위협으로 전환 될 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매우 강하게 묘사합니다. 토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심히 강성해졌다'(출 1:7)라는 표현을 중첩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라쉬는 이 과용한 언어가 눈에 보이는 엘로힘의 축복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성 세계에서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에 대한 것입니다.

람반은 애굽의 정책이 이스라엘을 효용성이 아니라 '운명을 지닌 백성'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에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노동으로 더 이상 유일한 가치가 아니되자, 두려움이 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스포르노는 거룩함이 세속과 동화되지 않을 때에 그 거룩함에 대적하는 적대감이 발생한다고 덧붙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출 5:2)는 구절은 그들의 내재한 것이 무지의 영이 아니라 거부의 영임을 드러냅니다. 클리 야카르는 이를 한 국가가 그의 권력을 최종 권위로 앞세우는 태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는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였으며 물리적 해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풍성한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울 약속을 받았지만(사 27:6),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 엘로힘의 계시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이라 조롱합니다(사 28:10). 이븐 에즈라는 이것이 조롱인 것이지 교육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말빔은 이러한 조롱의 태도가 사회를 교정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목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사망과 언약'(사 28:15)이라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변화 불가능하고 더이상 고칠수 없도록 치닫게 된것에 있습니다.

미드라쉬 라바는 바로의 어린 애기들을 살해 시키는 악한 그 명령이 구속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들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폭정은 그 부정적 결과에 있어서 현재보다 미래를 공격합니다. 소타 11 (a)에서도, 이집트 바로의 조언자들이 그들이 마주 할 국가적 운명을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이집트 왕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두려워했고 그로 인하여 당대에 이스라엘 아기들을 살생하고자 했던 그들 내면의 영적 두려움의 구조가 헤롯 왕권에서 똑같이 반복 됨을 기록합니다. 곧, 헤롯왕은 그의 권력을 대체 할것 같은 한 아기의 탄생 소식을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괄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의 관점에서 갱신서의 기록한 역사는 과거에 없었던 한 새로운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께서 이미 모쉐로 기록케 하신 토라 말씀 가운데 밝혀 가르쳐 주시는 인간 창조 목적과, 그의 뜻대로 선택하여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의 패턴을 확인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전반에서 악한 통제력의 증가는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파트에메트는 거룩함은 압제력 가운데 강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라브 히르쉬는 한 지배 권력의 폭정의 정점은 피지배자들의 지쳐 포기하는 절망에 기생하지만, 실상은 바로 그 장점이 최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5 장은 이스라엘의 퇴진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핵심으로 향하는 접근력인 것입니다. “구속”력은 불의한 한 통치 권세력이 최고조로 두려움을 드러 내게 된 바로 그 때부터 시작 됩니다.